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 유인웅 다 윗 오일공-오팔오-칠육삼팔
이범준 요 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5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녹) 연중 제14주일 **2025년 7월 6일 (제2141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토/일(8am~4pm)
E-mail: standrewoak@gmail.co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애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이사야 66,10-14ㄷ
화 답 송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갈라티아 6,14-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복 음 루카 10,1-12.17-20
영성체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성가]	8시	입당	16	봉헌	212	성체	188	파견	63
	11시	입당	62	봉헌	214	성체	498, 152	파견	63

연중 14 주일	7월 6일 (주일)		7월 8일(화)	7월 9일(수)	7월 10일(목)	7월 11일(금)	7월 12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이은자 마트로나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파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사목회
독 서	김원덕 시몬 김영선 안젤라	이창용 레이몬드 이경란 베로니카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사목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허홍숙 세실리아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데에 몸 바쳐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과 평화를 드러내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의 용기와 복음의 자유를 주시기를 청합시다.

■ 7월 성경 통독
- 테살로니카 1서 4,1 – 5,28

■ 7월12일 토요일 미사 전례 : 사목회

■ 성인 예비신자 교리교육 안내
- 교리시작 일시 : 7월10일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 교리 공부 있습니다.
- 신청 문의: 사무실

■ 미서중부 남성 제16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일시 : 2025년 7월 24일 ~ 7월 27일
장소 : St. Clare's Retreat
대상 : 모든 남성 신자
문의 및 신청 : 울뜨레야 간사 (510-688-0155)

■ 제29차 북가주 성령대회
- 일 시 : 2025년 8월 9일 (토), 오전 8:30 - 오후 6:00
- 장 소 :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1523 McLaughlin Ave, San Jose, CA 95122
- 신청문의 : 본당 성령 기도회, - 참가비: $30

■ 꾸리아 야유회 : 7월20일(일) 교중 미사후, 사제관 정원
- 일시 : 7월20일(일) 교중 미사 후
- 장소 : 사제관 정원
- 레지오 단원과 협조단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친선 탁구대회
- SF 성마이클 성당 탁구팀과 친선 경기가 있습니다
- 일시 : 8월10일 오후 2시
- 장소 : 본당 친교실

■ 하상회 하계 캠핑
- 일시 : 7월26일(토)-7월27일(일), 1박2일
- 장소 : Anthony Chabot Park

■ 7월20일 교중미사는 채홍락 시몬 신부님께서 공동 집전하십니다.

■ 황금빛 인생 여행 안내
옵션 1), **-날짜 : 9월9일-10일 (1박 2일)**
- 장소 : 요세미티 국립 공원
(혼자 보행이 가능하신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70세 이상- 10불, 70세 이하-20불
-호텔방 일인 사용- 호텔비용 전액 지불
***마감: 7월 13일(일)까지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옵셥 2), - 날짜 : 9월 12일
- 장소 : 사무엘 팍
** 두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

■ 모임 및 회의
- 사목회 : 7월6일(일) 교육관 106호
- 구역장회 : 7월6일(일) 교육관 106호
- 하상회 총회 : 7월6일(일) 교육관 201호
- 성령대회 준비 찬미 연습 : 7월12일, 19일, 다목적 실
- 샌리앤드로 : 7월13일(일) , 교육관 106호
- 라스모어/라모린다 : 7월13일(일), 교육관 107호
- 콘트라 코스타 : 7월20일(일), 교육관 107호
- 알라메다 : 7월27일(일), 5:30 pm, BB Bowl

■ 밥나눔 안내
- 오늘 밥나눔 없습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마리아,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정연중비오,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말찌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장민우, 김옥자마리아, 유낙양베로니카, 이영아아나스타시아, 임희숙세트리다, 이쥴리율리안나, 조지현안젤라,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조진행바실리오, 김혜숙아네스

■ 본당 한국학교 개강 안내
- 가을학기 시작 : 9월 6일 토요일 10시
- 1년간 수업료 $350
(한 가정에서 두 명의 자녀를 등록할 경우, 두 번째 자녀의 등록비는 $320입니다)
- 등록신청: 성 김대건 한국학교 이메일 참조
(standrewkimks@gmail.com)

■ 성당 내 안전 유의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감사합니다
- 본당 BBQ 파티에 수고해 주신 사목회, 성모회, 밥 나눔회, 대건회,성령 기도회, 빗자루회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베네딕토 (7/11)
- 베네딕타 (7/11)
- 베로니카 (7/12)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조선대목구 제3대 대목구장인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신부의 순교 소식을 전해들은 뒤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를 만나본 사람들이면 어느 누구나 그의 열렬한 신앙심과 성실한 마음에 존경심과 사랑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고, 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조선교회에서 그를 잃은 것은 큰 슬픔이자 불행이 됐습니다."

1846년 9월, 한강가의 새남터에서 26세의 나이로 순교한 김대건 신부. 스물여섯 해의 짧은 생이었지만 그가 이 땅에 남긴 신앙의 씨앗은 여전히 한국의 신자들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열렬한 신앙심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보여준 김대건 신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미사일(7월 5일)을 맞아 그의 삶과 영성을 살펴본다.

■ 천주께서 선택하신 아이

증조부 때부터 천주교를 받아들여 대대로 순교자를 낸 천주교 집안의 아이. 어려서부터 비상한 재주와 굳센 성격, 진실한 신심을 드러냈던 김대건 신부에 대해 모방 신부는 "이 아이는 아마 천주께서 선택하신 아이 같다"고 평가했다.

1836년 열 다섯이 되던 해에 세례를 받은 김대건은 모방 신부가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묻자 "남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힌다. 열다섯 살의 어린 소년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예수님의 길을 알고, 그 모상을 따르려는 의지로 가득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했던 어린 소년의 의지는 말로 끝나지 않았다. 그 길로 다른 두 소년과 함께 마카오로 떠난 김대건은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마카오에서 4년간 라틴어와 철학, 신학을 공부한 김대건 신부는 조선으로 들어가기를 결심한다. 그 과정에서 만주에 들른 김대건은 북경으로 가던 신자 김 프란치스코를 만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기해박해로 아버지는 참수를 당하고 어머니는 거지꼴로 교우집을 다니며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앙을 지켜야 할지 기로에 놓였을 상황. 그 순간 그는 조국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야겠다는 신념을 더욱 굳히게 된다. 김 프란치스코로부터 앵베르 주교가 기록했던 박해의 기록과 모방신부와 샤스탕 신부의 편지, 목자를 보내줄 것을 청한 교우들의 편지를 받은 김대건은 그 길로 조선에 있는 메스트르 신부를 만나기 위해 변문을 향해 떠난다.

■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무릅쓰고 조선에 들어가 신앙을 전파하고자 했던 김대건 신부의 기백과 용기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김대건 신부가 마지막 서간에 남긴 '온갖 마음으로 천주 예수 대장의 편을 들어 이미 항복받은 세속 마귀를 칠지어다'라는 말을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즉 으뜸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김대건 신부가 **그리스도를 자기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식했다는 것도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임금으로부터 배교할 것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김대건 신부는 "임금 위에 또 천주께서 계시어 당신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니 그의 배반함은 큰 죄악이라, 임금의 명령이라도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라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우위를 용감히 증거했다.

김대건 신부는 자신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을 행위로 증명했다. 그는 남을 위한 희생을 실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허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마카오와 조선 국경 근처를 수없이 헤매면서도 하루 빨리 신부가 돼 조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김대건 신부는 마지막 서간에서 '우리는 미구에 전장에 나갈 터이니, 부디 착실히 닦아 천국에 가 만나자'라는 말을 남겼다. 이를 통해 김대건 신부가 죽음 앞에 굴복함이 없이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 기쁨의 감정도 함께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김대건 신부가 참수될 당시, 칼로 여덟 번 목을 친 뒤에야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전해진다. 목을 치기 위해 얼굴에 물을 뿌리고 회칠을 한 뒤 무릎을 꿇려 머리를 잡아당긴 상황에서 김대건 신부는 말한다. "이 모양으로 하고 있으면 칼로 치기가 쉽겠느냐? 자, 준비가 다 되었으니 쳐라." 죽음 앞에 이같이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후에 영복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김대건 신부가 우리에게 전하는 신앙의 핵심은 '이웃 사랑'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다. 김대건 신부 역시 이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대건 신부는 아홉 번째 서간에서 '인류는 대가족'이란 말을 언급한다. "인류라는 대가족의 공번된 부친인 천주께서 당신 모든 자녀들을 형제와 같이 결합하게 하시고 인류에 대한 당신 성자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서로 친구처럼 지내게 할 날은 어느 때나 오려는지오"라는 김대건 신부의 말을 통해 그가 이웃이란 개념을 개별 민족으로 국한하지 않고 범인류를 향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대건 신부는 순교를 앞둔 순간까지 교우들에게 **이웃 사랑**을 강조했다. 그는 교우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간에서 '나는 비록 갇힌 몸이 돼 곧 죽을 것이지만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사랑으로 도우며 천주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몸을 이루다가 모두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같이 살자'라고 표현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던 김대건 신부. 희생과 사랑의 가치가 퇴색하고 있는 지금, 김대건 신부가 전하는 이웃 사랑의 가르침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가톨릭 신문)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42명	161명	203명

주일미사		2차 헌금		교무금	Bishop's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 임윤택(6),김영자(6),김현수(4-6),김학철(7),조우송(7),박호영(7),황정숙(7-12),조진행(7),전진영(4-6),박민자(1-6),감서잊(5-6),채성일(6-7),이정연(7),김세록(4-6)					김세록	김학철	임윤택 김세록		조우송	김영미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7/6(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7/8(화)	연	최정자 젬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김영자 세실리아	장철호/송아네스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연	이회인 프란치스코	이연 베드로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이회인 프란치스코	이영 크리스티나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연	이회인 프란치스코	이욱경 글라라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연	김재성 제이슨	이규호요한 가족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연	김마르코	가족		생	이경희 미카엘라	이요셉/마트로나
	연	박영자 클라라	이수나 유스티나		생	김영희 엘리사벳	이규호요한 가족
	연	박종섭 요셉/정율리안나	가족				
	연	김정희 율리엣다	가족				
	연	김형준 시몬	가족	7/9(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부홍신 마티아	부 필로메나				
	연	이동춘 바오로	부 필로메나				
	연	홍일영 리차드	가족	7/10(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홍일영 리차드	육 아오스딩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나
	연	한문석 임마누엘	육 아오스딩/아가다		연	힌동설 안젤로	가족
	연	김재성 제이슨	김케넷 가족				
	연	박인식 베드로	조용숙 카타리나				
				7/11(금)	생	한윤정 아가다	최영자 세레나
7/6(일)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7/12(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장민우	전데레사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이바오로/파트리샤	전데레사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이바오로/파트리샤 가정	심데레사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김만옥 요안나	윤성진루카/윤루시아		연	박진영 베드로	박덕희 마리아
	생	강윤희 보나	순배수산나		연	홍일영 리차드	가족
	생	데이빗 골든	순배수산나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황성국 베드로	황선희 세실리아		생	장민우	송아네스
	생	전윤자 데레사	조진행 바실리오		생	심 베로니카	심데레사
	생	심 베로니카	심데레사		생	김복희 베로니카	이베로니카
	생	심데레사	송아네스		생	한윤정 아가다	최명주 젬마
	생	채용분 헬레나	송아네스		생	김태용 요한	최명주 젬마
	생	주정희 마리아	송아네스				
	생	윤경림 글라라	송아네스				
	생	전지형 알렉스	송아네스				

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생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

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

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

폴김 & 김영선 안젤라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